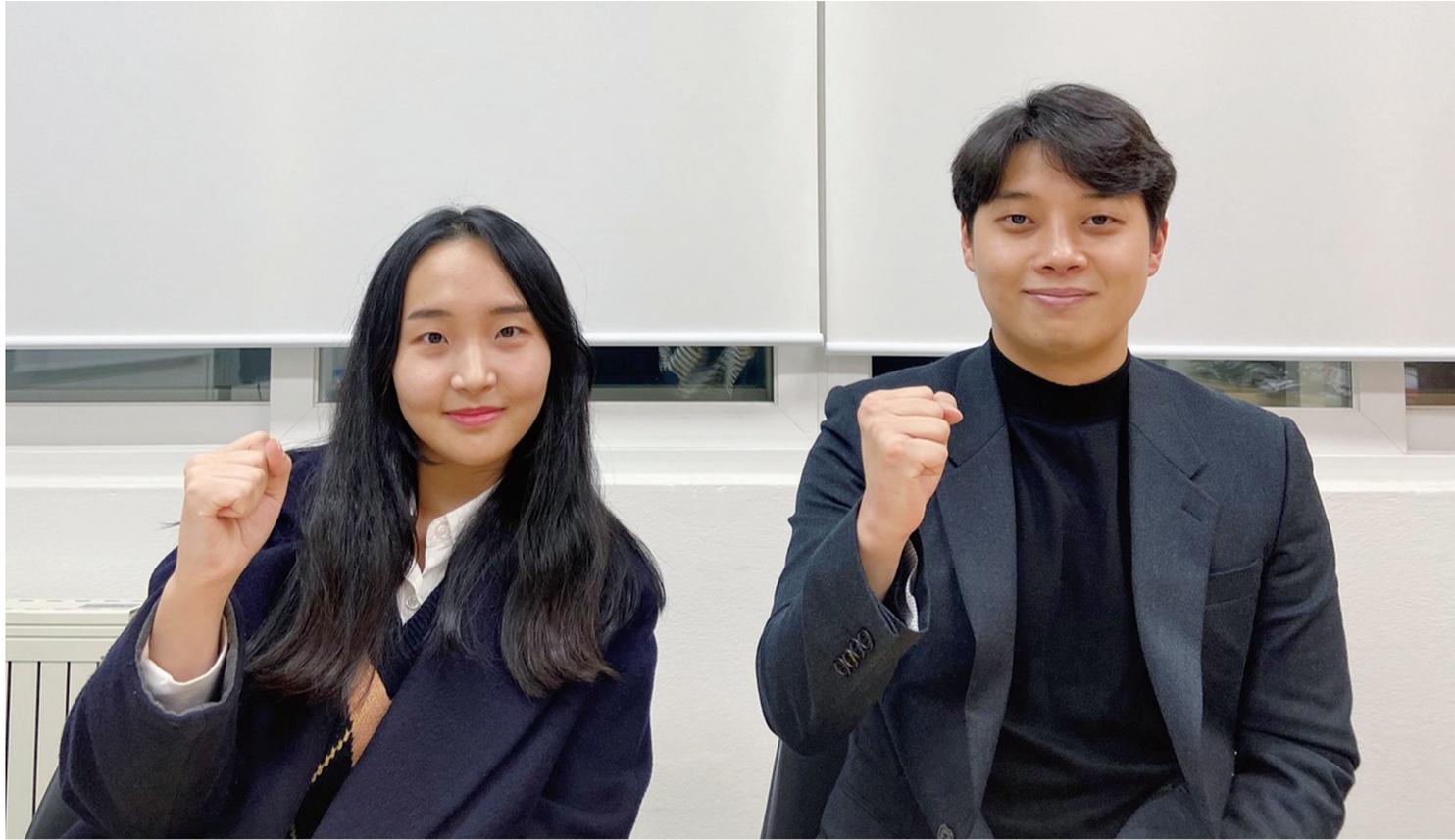


8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인터뷰



제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단선 후보 KHUPlay 선본 봉건우(자율전공 2017·오른쪽)정후보와 김다은(무역학 2018·왼쪽)부후보

(사진=이현정 기자, 강나윤 기자)

<단선 후보 KHUPlay 선본> “다시 함께, 경희를 재생하다”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의 2022년을 책임질 총학생회(총학) 선거에 (KHUPlay)가 단독 입후보했다. 우리신문은 <KHUPlay>를 만나 그들이 가진 생각을 들어보았다.

Q. 출마의 계기는?

A. 봉건우 정후보는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며 기획과 학생자치 전반을 경험해왔고, 김다은 부후보는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을 지내며 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함께 출마를 준비하게 되었다. 또,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소중했던 경험과 추억이 많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사회가 침체되고 멈춘 시간으로 흘러간 2년에 대해 아쉬움이 컸다. 이제 워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어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대면 학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학의 부활과 재건을 통해 학우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지향점이 같았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Q. KHUPlay 선본명의 의미

A. KHU와 ‘재생’이라는 의미의 play를 결합한 선본명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2년간 지속되면서 대학 사회가 무너진 상태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로 ‘일시 정지 상태의 경희대학교’를 다시 재생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선본명을 정했다.

Q. KHUPlay 선본을 유권자가 뽑아야 하는 이유와 선본만의 강점이 있다면?

A. 대면·비대면 상황에서 학생회를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대면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비대면 상황을 모두 경험했고, 그 변화 속에 있었다.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했기에 대면을 경험했던 학번이 그리워하는 게 무엇인지, 비대면만을 경험한 학번이 어려워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20·21학번의 학생 자치 참여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총학생회 조직이 해야 하는 일은 학생 자치 발전과 대학 사회 재건을 위한 매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을 지속해 온 20·21학번 학우들을 억지로 학생 자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자치와 20·21학번을 이어주는 ‘매개’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런 생각에서 파생된 공약이 경희만의 대축제인 ‘마스터피스’ 개최 및 동아시아연합회와의 연합을 통한 활동이다. 또 대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간을 통한 단결’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학교 공간이 전면 폐쇄되면서 자연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한 대학 사회가 무너진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학생자치 공간의 순차적인 개방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설명한 방안을 통해 학생 자치 발전과 대학 사회 재건을 위한 매개를 만들어 내 코로나19 이후의 학번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다.

Q.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A. 쿠플레이(KHUPlay) 공약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대학 사회 재건과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다. 먼저, 대학 사회 재건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경희 대축제인 마스터피스 재실시와 동아리 활동 재개 지원 사업, 학생자치멘토단 발족이다. 이를 통해 대면으로의 안정적인 학생 자치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극복 이후 단순한 대면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개강 때 겪은 어려움과 경험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이끌고 싶다. 전면 대면 개강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비대면 강의의 비율을 높이는 공약 역시 뉴노멀

시대로의 도약이다. 현재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 학기로 전환되어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Q. 학생자치멘토단 공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A. 학생자치멘토단의 취지는 안정적인 대면 학생 자치의 전환이다. 2022년은 코로나19 첫 세대인 20학번 학우들이 3학년이 되는 시기다. 즉, 학교의 학생 자치를 운영해야 할 주체가 20학번 학우들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1학번 학우들은 대면 학생자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낸 공약이다.

학생자치멘토라는 이름으로 대면을 경험한 고학번을 모집해 단과대의 학생자치멘토단 발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대면 학생 자치 전환을 꾀하고 싶다. 또, 해당 공약이 조언을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희대학교만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부터 진행해 온 새내기 율동제는 2020년부터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내기 율동제는 학교본부 자체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 행사인 만큼 그 전통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20·21학번 학우들은 새내기 율동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해당 행사에 대해 모르는 학우들도 많다. 학생자치멘토단을 모집해 구성한다면 새내기 율동제를 비롯해 경희대학교만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한다.

Q. 유학생 등록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A.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쿠플레이의 세부 공약에 등록금 책정 위원회에 총유학생회장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이 있다. 사실 유학생 등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회의에서 유학생 대표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총유학생회장이 필수적으로 등록금 책정 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유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건강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총유학생회의 회의 정례화 ▲유학생과 함께하는 경희대축제 글로벌 부스 운영 ▲총학 차원의 제휴 사업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게시 등 유학생을 위한 공약이 존재한다.

Q. KHUPlay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A. 경희로운. 다시 경희대학교의 예전 문화를 살리며, 대학생활을 재개함으로써 경희로움을 되찾고 싶다. 또, 쿠플레이가 경희대학교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희로움을 만들고 싶다.

Q.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의 선거 무산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A. 국제캠 총학에 선본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활동하게 됐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확대운영위원회 연석회의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었다고 생각했다. 서울과 국제캠이 함께 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캠 총학이 비대위로 구성된다 보면 시기적으로 친위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미뤄질 수 있을 거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Q.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A. 지금이 총학생회 54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2년간의 비대면 활동에서 대면 학기로의 전환이 이뤄지며 학생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학생 대표자 선출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끝으로 ‘경희로운 내일, 이제 다시 플레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